

평양 대부흥운동의 확산에 관한 연구

김권정 *

- I. 머리말
- II.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배경-왜, 평양지역인가?
- III. 대부흥운동, 어떻게 전국화 되었는가?
- IV.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국화가 낳은 결과
- V. 맺음말

I. 머리말

19세기말 기독교(개신교)는 서양 제국주의의 물결을 타고 한국사회에 들어 왔다. 조선시대이후부터 지배세력인 양반의 통치이념으로 채택된 유교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견고한 유교적 질서도 19세기 말엽이 되면 안팎의 충격으로 틈이 생겨났는데, 이 틈새를 비집고 기독교는 한국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후 한 세기를 지나면서 급속히 성장한 기독교는 남쪽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대종교’가 되었다.¹⁾

이런 상황을 두고 한국사회 안팎에서 기적과 같은 성장과 관련하여 빼

* 숭실대학교

1) Chung-Shin Park,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Seattle and London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 pp. 13-49.

놓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이다. 오늘 한국기독교 발전의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하는데, 1907년에 이뤄진 역사적 사실과 의미는 그 이전의 한국교회 역사를 계승하는 동시에 새로운 역사적 지평을 펼쳐나갔다는 점에서 오늘 한국교회에 시사하다 바가 많다. 그래서 한국기독교 초기의 발전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오늘의 한국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07년의 대부흥운동을 건너뛰고 나아갈 수 없다.

2007년 올해는 한국교회 역사의 한 분기점으로서 평가받는 1907년 기독교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한국교회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이후 한국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고 기독교에 대한 한국사회의 냉소적이다 못해 비난과 조롱이 커가는 위기적 현실 속에서 1907년을 주목한다는 것은 오늘 한국교회의 위상과 그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제까지 한국기독교역사 연구에서 1907년 대부흥운동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²⁾ 이들 연구들은 대부흥운

2) 저서로는 김양선, 『韓國基督教史研究』, 기독교문사, 1971;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 1882~1910』, 연세대 출판부, 1973;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개정판)』,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I)』, 기독교문사, 1989; 박명수, 『한국교회 부흥운동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등이 있다. 관련 논문으로는 주재용,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사적 비판 : 1907년 대부흥운동 이해」, 『기독교사상』, 1978. 9; 손승희, 「대한제국시대 기독교의 성령운동」, 『대한제국연구』Ⅲ,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소, 1985; 서정민, 「초기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이해 : 민족운동과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보성, 1986; 노대준, 「1907년 개신교 대부흥운동의 역사적 성격」,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석동기, 「한국최초의 개신교 신앙부흥운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박명수, 「성결운동과 한국교회의 초기 대부흥」, 『한국기독교와 역사』1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이병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요인 규명」, 『한국기독교와 역사』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옥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한국기독교와 역사』2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이만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몇가지 검토」, 『한국기독교와 역사』2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등이

동을 주로 한국교회의 비정치화 과정에서 생긴 현상으로 평가했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나온 대부흥운동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의 결과가 나왔는데,³⁾ 대부흥이 의도적인 비정치화의 결과라는 관점을 비판하면서 부흥운동이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한국기독교 역사 전체적 흐름 속에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평양지역에서 왜, 대부흥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왜 1903년에 시작된 부흥운동이 함흥·송도·제물포·서울로 이어졌고, 이런 흐름은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지금까지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이들 연구들 대부분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크게 대내적인 것으로 한국교회가 갖고 있던 사경회, 기도회 및 한말 위기에 처한 국가적인 상황을 들 수 있고, 대외적인 요인으로 세계부흥운동과의 교감을 꼽았다.⁴⁾ 이를 통해 대부흥운동의 전체적 배경이 밝혀졌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은 한국교회 전체 차원에서 1907년 대부흥운동을 접근하다보니 왜 1907년 대부흥운동이 평양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타 지역 부흥운동과 구별되어 한국기독교 ‘대부흥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 부흥운동의 ‘전국화’에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평양지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접근이 문제의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1903년 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 전국 각지에서는 평양의 대부흥운동에서 나타난 변화의 모습들이 크던지 작던지 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있다.

3)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개정판)』, 생명의 말씀사, 2007.

4) 이만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몇 가지 검토」, pp. 6~35 참조할 것.

문제는 이들 부흥운동이 그 지역에서는 일회적 또는 단기적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몇몇 사람들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연결되는데 비해, 왜 유독 평양 부흥운동이 집단적으로 지역을 넘어 전국 각지로 확산되어 갔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전국화 되는 과정의 모습이 종합적으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평양대부흥운동의 전국적인 확산과정이 낳은 결과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므로 확산되는데 성령의 역사와 한국 정치사회의 다양한 배경들이 있겠지만, 평양의 교회와 교인들의 역사적 현실이 부흥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동력(動力)이 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부흥의 열기가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에 확산되는 과정을 시간적으로 정리하고, 이런 전국화 과정의 낳은 결과들을 정리하여 그 성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II.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배경-왜, 평양지역인가?

1. 평양지역과 기독교 수용

평양지역은 관서지방의 중심지로 특수한 정치사회적 현실 속에서 자립적이며 현실적인 지역분위기 속에서 타 지역보다 개신교를 가장 주체적으로 열렬하게 받아들인 곳이다. 이런 원인에는 관서지방이 갖는 정치사회적 특성이 놓여 있었다. 승실학당의 설립자인 배위량(裴緯良, William M. Baird)은 북한지역을 여행하고 쓴 글에서 ‘북쪽지방(관서지방)에는 자립적인 중산층(Independent middle class)이 우세하기 때문에 희망에 넘쳐 있다’라는 말로 관서지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적 특수성이 있음을

언급했다.⁵⁾ 그것은 이 지역이 조선시대 오랜 정치사회적 차별로 양반사족의 형성이 약했고, 그런 관계로 일찍부터 책을 읽어 글을 잘해 과거에 합격해 벼슬을 하는 양반계층이 다른 지역처럼 크게 형성되어 있지 못했음을 의미한 것이었다. 아무리 글공부를 잘하여 과거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관료로 출세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같은 정치적 불평등과 함께 이 지역에는 일찍부터 빈부의 격차가 적고 평민층의 자치적 사회질서가 발달했다. 특히 유교적 형식이나 현실과 유리된 유교적 지식에 거리를 두며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회적 신분 차별 속에서도 자신의 생계를 직접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상공업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종의 문화(文化)로 자리잡게 되었다.⁶⁾ 즉 조선후기 이래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따라 대청무역(對淸貿易)과 상업을 통한 부의 축적이 이뤄지면서 서당교육을 통해 일정한 지식을 갖춘 중소상공인·중소지주·자작농 등 이른바 ‘자립적 중산층’이 관서지방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초기부터 평양지역은 선교사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서북지방의 중심지인 평양은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로 북부지방의 중앙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상업활동이 활발하고 교통의 요지였던 관계로 선교 기지(Mission Station)로 최적의 장소였다. 선교사들은 평양의 기방(妓房)과 석전(石戰) 등 풍습과 외부인에 대해 무례하고 성품이 강해 접촉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지역이라는 어려움도 심각하게 느꼈다.⁷⁾

그러나 많은 인구와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상업적 성향, 육상 및 해상 교통의 중심지인 평양은 많은 선교사들의 선교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드디어 1892년 미 북감리회 의료선교사 홀(J. H. Hall, 賀樂)이,

5) Frier Martine(W. M. Baird), *The Independent*, Vol. 2, no. 59, 20 May 1897.

6) 숭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 ; 평양숭실편』, 숭실대학교, 1997, p. 28.

7) 셔우들 홀 / 김동열 역, 『닥터 홀의 조선회상』, 동아일보사, 1984, p. 89.

1893년 미 북장로회 선교사 마펫(S. A. Moffet, 馬布三悅)·그레함 리(Graham Lee, 李吉威)·스왈렌(W. L. Sowallen, 蘇安論)등이 평양에 파송됨으로써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었다.⁸⁾

1892년 미 북감리회의 평양개척 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의사였던 홀은 그 해 9월에 도착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평양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다음해 2월에는 한국인 조사 김창식을 내세워 평양성 내에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선교기지를 마련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잘 처리되었다.⁹⁾ 더불어 미 북장로회에도 역시 한석진 조산을 통해 선교기지 확보를 위한 가옥구입과정에서 고난을 받았으나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¹⁰⁾

평양에 기독교가 수용되는 초기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평양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고난을 당해야 했다. 그것은 1894년 6월에 일어나자 청일전쟁의 격전장이 바로 평양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대부분의 평양 주민들이 전쟁을 피해 평양 외곽지대 산간지대로 피난을 떠나야 했다.

치열한 청일전쟁 와중에 평양의 교회는 피난민 수용소가 되었다. 평양을 점령한 일본군이 교회 재산만은 보호해 주겠노라 약속해 주었던 것이다. 전쟁 중 교인들이 흩어지고 힘들게 지은 교회가 부서지는 시련을 겪었고, 선교사들이 전쟁을 피해 평양을 떠나 전도활동에 차질을 빚어졌고, 설상가상으로 평양 관찰사 민병석의 탄압으로 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¹¹⁾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교회에 놔두고 갔던 피난민들의 재물을 전쟁 후 피난갔다 온 주민들에 그대로 돌려주었고, 전쟁 중 내내 평양에 남아 있던 교인들 대부분은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며 전쟁을 떠나지 못한 평양주민들과 전쟁 직후 돌아온 피난민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8) 이광린, 「평양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와 역사』10, 1999, p. 10.

9) 이만열 편, 『아펜젤러-한국에 온 첫 선교사』, 연세대 출판부, 1986, p. 360.

10) 이덕주, 『나라의 독립, 교회의 독립』, 기독교문사, 1988, pp. 69~70.

11) 김승태, 「1894년 평양 기독교인 박해사건」, 『한국기독교사연구』15·16, 1987, pp. 19~20.

주었다.

이처럼 교회가 평양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교인들의 자선적 활동은 평양주민들이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인 인상과 태도를 갖게 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또 지역의 탄압과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교인들은 절대자에 의존하는 신앙이 더욱 깊어져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것으로 전도의 가능성이 훨씬 증대되었다.¹²⁾ 이는 외지 사람에 대해 배타적이고 드센 평양지역에서 기독교가 빠르게 수용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1907년 부흥운동이 평양지역에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평양의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개방성을 토대로 기독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이미지가 결합된 결과였다.

2. 의료와 교육사업의 발전

청일전쟁이후 평양의 기독교는 점차 활기를 띠었다. 그것은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해 환자가 급증했고, 의료 선교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으며, 탄압을 받았던 교인들이 선교사들이 조선정부에 항의하여 석방됨으로써 평양주민들이 선교사의 영향력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895년 평안도 지방에 콜레라와 천연두가 유행하자 선교사들이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민들은 감격하여 선교사들의 종교에 관심을 가져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교회에 나아가 신앙을 고백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의료선교는 단순히 간접선교가 직접 선교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¹³⁾

평양에서 장로교보다 먼저 의료선교를 시작한 감리교는 의료선교사 홀

1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역사 I』, 1989, pp. 257~258.

13) 신재의·김권정·조이제, 『한국기독교와 초기 의료선교』, 한국기독교역사문화연구소, 2007 참조.

이 1895년 갑작스럽게 순직했으나, 그의 뒤를 이어 폴웰(E. D. Follwell) 선교사 병원과 의료사업을 담당했다.¹⁴⁾ 홀의 부인도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고 환자들을 돌보았다.¹⁵⁾ 의료사업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 당시 평양에 근대적 의료시설은 기독교에서 운영하던 병원들 밖에 없었다. 서양 의사들이 치료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선교사들은 교인이던 아니든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치료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평양 주민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또한 장로교 의료선교사 웰즈(J. H. Wells, 禹越時)는 1895년 평양에 와서 의료 활동을 시작했다.¹⁶⁾ 그와 함께 온 교인들은 환자들에게 전도사업을 펼쳐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 같은 활동은 계속되어 1906년에 매달 1,500여명의 환자들을 진료할 정도로 그 규모면에서 날로 커져 갔다.

이처럼 의료선교는 비록 평양에서만 있어서 큰 효과를 본 것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평양에서도 기독교가 평양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평양지역에서는 의료사업과 교육사업도 시작되었다. 장로교의 경우에는 1897년 베어드(W. M. Baird, 裴偉良)의 사랑방에서 시작된 승실학당은 1901년 새로운 교사를 짓고 중학과정을 실시했으며, 1906년에는 북감리회와 연합으로 대학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승실중학과 승실대학이 분립되었다. 마펏은 1894년 승인상업학교도 설립했다. 여학교로는 선교사리가 1897년 자신의 저택에서 10여 명의 소녀를 모아놓고 가르친 것이 그 출발이 되었다. 1903년 승의여학교가 설립되었다.¹⁷⁾ 예컨대, 1898년 한 해에는 미 북장로회 선교회가 설립한 학교가운데 평양에 가장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다. 남학당이 11개, 여학당이 2개로 서울보다 훨씬 많았

14) “평양에 유람한 일”,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8년 4월 6일자.

15) “평양에 있는 병원”,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8년 8월 10일자.

16) “교회통신”, 「그리스도신문」, 1897년 7월 1일자.

17) 이광린, 위의 글, p. 13.

다. 1901년에 송실학당에는 50명이 학생이 있었고, 예수교 소학교에서는 성경·국문·한문·지도·사기(史記)·습자·수법(數法)·격치(格致) 등을 가르쳤다. 또한 1901년에는 장로교 신학교가 평양에 세워져 한국 장로교 신학의 요람이 될 정도로 평양지역은 한국장로교 및 기독교의 교육 산실로 자리 잡았다.

감리교의 경우에는 1894년 홀 선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13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하고 성경과 한글·한문 등을 가르쳤다. 노블 부인은 1896년 여야 3명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서 역시 학교를 시작했다. 나중에 남산현학교로 발전했는데, 1906년에 교사 2명, 재적학생 130명의 학교로 크는 등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 일반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또 광성학교(光成學校)의 전신인 격물학 학당은 평양 주민과 교인들의 열렬한 기대 속에서 세워졌다. 1903년 북감리회 북지방 교인 1,400여명은 시대에 맞는 기술교육을 받을 학교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져 1907년 학당이 세워질 수 있었다.

평양 교인들은 학교를 세우데 다른 어떤 지역보다 자립적인 활동을 하였다. 물론 초기엔 학교 설립에서 선교사들이 주도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교인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자력으로 세우고자 했다. 예를 들어, 북 장로회와 북 감리회가 연합으로 송실대학을 설립할 때 평양 교인들이 돈이나 집·땅 등을 헌물하기도 했으며, 죽을 때까지 매일 또는 매달 얼마씩 내기로 작정하기도 하거나, 건축 자재물을 제공하며 패물을 아낌없이 내놓았고, 내놓을 것이 없을 때는 노동력을 내놓기도 했다는 기록¹⁸⁾을 보아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이처럼 평양의 기독교는 의료사업과 함께 교육사업에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있었다. 의료사업과 달리 교육사업은 선교사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양의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결과이기도 했다. 이

18) “교회통신-평양내신”, 「그리스도신문」, 1906년 7월 19일자.

렇게 평양지역에 많이 세워진 학교들과 학생들이 평양 대부흥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1907년 대부흥운동의 인적·물적 토대의 역할을 담당했다.

3. 평양지역의 교세와 신앙적 열정

평양지역의 기독교인들의 열정적 헌신과 전도활동이다. 의료 활동과 교육활동의 성공적 안착과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인 교인들의 열심과 헌신은 평양지역에서 기독교가 시간이 갈수록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평양의 기독교 교세는 다른 어떤 지역에 보다 급성장으로 나타났다.¹⁹⁾

북장로회 교세(1897)

| | 서울근처 | 평양근처 | 부산 | 원산 | 전체 |
|--------------|---------|----------|----|----|-------|
| 세례교인(전체) | 526 | 377 | 9 | 20 | 932 |
| 세례교인(최근11개월) | 173 | 173 | 1 | | 347 |
| 원입교인 | 594 | 1,723 | 12 | 15 | 2,344 |
| 성경학당(통학) | 8 | 5 | 1 | 1 | 15 |
| 성경학당 학생 | 남41, 여8 | 남56, 여14 | 44 | 3 | |
| 병원 | 1 | 1 | | | |

전체 세례교인 중, 평양근처가 서울 근처에 비해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최근 11개월 사이에 세례받은 교인이 173명으로 서울 근처와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 나온 원입인의 수가 서울 근처에 비해 거의 3배에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급속한 성장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평양지역에서 기독교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

19) “장로교회 회의한 말”, 「그리스도신문」, 1897년 9월 16일자 ; 이광린, 위의 글, p. 18.

에 비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을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평양을 포함하는 평안도 지역의 교세를 보여주는 다음의 표로도 확인이 된다.²⁰⁾

장로교 세례교인수

| 연도 | 평안도 | 전국 |
|------|-------|-------|
| 1894 | 52 | 236 |
| 1895 | 73 | 286 |
| 1896 | 243 | 530 |
| 1897 | 377 | 932 |
| 1898 | 1,058 | 2,079 |

| 연도 | 평남/황해도 | 전국 |
|------|--------|-------|
| 1901 | 2,994 | 4,793 |
| 1902 | 3,100 | 5,481 |
| 1903 | 3,765 | 6,491 |
| 1904 | 4,703 | 7,916 |
| 1905 | 5,468 | 9,756 |

평안도의 세례교인은 5년 만에 약 20배가량 증가했고, 전국 장로교 세례교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평양선교지부가 관할하는 평안남도과 황해도의 세례교인이 전국 장로교 세례교인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평안북도까지 합치면 관서지방의 세례교인은 전국 장로교인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는 평양을 포함한 평양지부의 지칠 줄 모르는 가파른 교세의 성장을 잘 보여준다.

이와 함께 감리교의 성장도 급속도로 나타났다. 평양지역의 감리교 발전상은 미북감리회 선교연회 보고서를 참고하면 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2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p. 68.

이를 보면 1896년~1898년 사이에 학습인과 원입인이 51명에서 525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고, 학습인만 놓고 본다면 전국 최고의 수치를 보였는데,²¹⁾ 이는 북장로회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이나 평양 감리교는 전국에서 가장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그런데 평양지역에서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것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불과 몇 명의 선교사들만으로 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성장하게 된 데에는 교인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며 헌신적으로 활동한 한국인 교인들의 수고가 컸다. 한국인 조사들과 전도인들은 평일에도 평양 일대를 돌아다니며 전도활동에 적극 헌신했을 뿐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전도에 참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생겨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날연보’라는 것이 있다. 교인들이 며칠씩 시간을 내서 전도하기로 하고 그 날 수를 미리 작성하여 적어내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신문」1906년 3월 29일자 “교회 통신-평양동면 장천내신”의 기사를 보면, 1906년 1달 동안 모아진 날수가 210일로 1905년 1년 동안 날수와 비슷할 정도로 교인들이 날연보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이 같은 열심은 평양에서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으며, 1907년 대부흥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동력이 되었음을 말할 필요가 없다.

평양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배우는데 열성적이었다. 사경회(查經會), 즉 성경을 공부하는 집회가 수시로 열렸는데, 많은 교인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 모임에 참가했다. 평양에서 열린 사경회에는 평양과 평안도 일대는 물론 멀리 전라남도에서 교인들이 찾아올 정도였다.²²⁾ 사경회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사경회가 끝나면 교인들이 늘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는 점이다. 성경을 배움으로써 지식이 늘고 신앙이 견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21) 이광린, 위의 글, pp. 20~22.

22) “교회통신-평양”, 「그리스도신문」, 1902년 1월 30일자.

직접 실천하는 활동을 펼쳤던 것이다. 사경회는 복음과 성경에 대한 열정으로 평양 및 평안도 지방에 급속하게 확장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세의 급격한 성장과 평양 교인들의 자발적 움직임은 점차 평양에서 기독교가 무시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게 만들었고, 종교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까지 그 활동이 확대되어 나갔다. 이 같은 평양 및 평안도 일대에서 지닌 기독교의 위상과 기독교 공동체와 교인들의 역사적 현실은 1907년 기독교 대부흥운동의 확산을 추동시키는 사회적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다.

Ⅲ. 대부흥운동, 어떻게 전국화되었는가?

1. 평양지역의 부흥운동 확산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에서 열린 선교사들의 기도회 모임이 도화선이 되었다. 원산에서 활동하던 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캐나다 출신 의료선교사로 남감리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하디(R. A. Hardie, 河鯉泳) 선교사가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통회의 기도를 하였고, 이것이 발단이 부흥운동의 발단이 되었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 찬 고백은 참석한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하디 자신에게 성령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²³⁾

이어 1904년 1월에 원산에서 개최된 교파별 연합기도회에서는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 럽(A. F. Robb)이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었고, 이 때 전계은·정춘수 등 한국인이 큰 은혜를 받기도 했다.²⁴⁾ 1905년 8월 평양에서는 선교사 중심의 기도회가 열려 부흥의 불길 이 솟아나더니, 같은

23) 백낙준, 『韓國改新敎史』, 연세대출판부, 1973, p. 384.

24) 전택부, 『토박이 신앙산맥』,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pp. 174~205.

해 삼남지방 목포에서까지 전해져 그 곳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1907년 이미 크고 작은 부흥의 열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영적각성운동’의 차원에서 부흥운동의 움직임은 배경으로 1907년 1월 장대현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촉발되었다.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사경회가 끝난 뒤에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면서 평양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먼저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확산되었다. 대부흥운동의 시발이 된 사경회가 끝나고 1월 16일 장대현교회 수요기도회에서 또다시 부흥의 열기가 계속되었다. 전날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이들이 참석했다.²⁵⁾ 집회를 인도했던 그레함 리 선교사는 단지 몇 사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가도 좋다고 했으나 은혜를 사모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수요 기도회에 남아 기도하였다. 그 때 장대현교회의 주(朱) 장로가 내면의 깊이 감추었던 죄를 토로하기 시작했다. 회개의 역사는 절정에 다다랐을 무렵, 아내를 죽였다는 김찬성이라는 젊은이의 충격적인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통회의 기도가 불꽃처럼 타올랐다.²⁶⁾

이날 장대현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거의 연일 계속되었다. 1907년 2월 13일부터 두 주간 장로교 남녀사경회가 열렸는데, 남자 약 800여명과 여자 약 400명이 참여했다. 이번에는 담당자들은 달랐으나 진행 일정은 유사했다.²⁷⁾ 평양의 상점과 가게 문을 두 주간 동안 닫고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평양 시내 가게들 대부분이 닫혀 있을 정도였다. 사경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한 명의 선교사와 한 명의 한국인이 짝이 되

25) W.N. Blair, *Gold in Korea*,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57, p. 115.

26) 블레어 / 김홍만 역, 『찬성의 고백』, 도서출판 옛적길, 2002, pp. 180~181.

27) G. S. McCune, "The Wonder of IT", *Korea Mission Field*, 1907, 3, p. 44.

어 평양 시내 전역으로 흩어져 전도활동을 하는 축호전도를 실시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도대상자들을 저녁집회에 초대했다. 매 집회마다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집회에 새로 참석했다. 저녁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났다.

이런 현상은 3월 16일부터 12일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전국 550여 명의 전도부인들이 참석한 사경회에서는 평양에서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다. 참석한 이들은 거의 예외없이 죄의 짐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평양의 부흥역사는 장로교와 감리교 전체로 확산되었다. 장로교 장대현교회의 부흥역사는 평양 시내 감리교회들에도 큰 영향과 신앙적 도전을 주었다. 노블(W. A. Noble)을 비롯한 감리교 선교사들이나 지도자들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1907년 2월 10일 평양 남산현교회에서 기도회에서 간단한 설교가 끝난 뒤, 한 젊은이가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기 시작했다. 직후 교회 모든 남자들이 벼락을 맞은 것처럼 쓰러져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²⁸⁾ 한달 전 장대현교회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재연되었다. 이후 평양 감리교회 내에서도 부흥의 불길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의 역사는 평양 시내 미션 스쿨에도 그대로 옮겨져 나타났다. 즉 부흥운동은 단순한 교회 내에서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교회 밖의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점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요한 특징이다.

평양 시내 학교들에 나타난 부흥의 불길은 2월에 송실학교가 개학하자마자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학생들 가운데는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사경회 저녁 집회 때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28) 리은승, 「교회스기, 평양 오순절략스」, 『신학월보』, 1907. 2, p. 54.

경험한 이들도 있었다. 1907년 6월 첫 주 동안 감동이 너무 깊어 학교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정도로 죄의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더니 약 2주간 학생들은 내면의 깊은 죄를 고백함을 통해 부흥의 역사를 깊이 체험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을 위한 증보기도를 드렸다. 나아가 평양 시내 기독교 학생들은 전도회란 전도단체를 조직하여 인근 촌락교회나 시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방학 때에는 평양을 벗어나 먼 곳까지 전도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갔다.²⁹⁾

숭실대학을 비롯한 미션스쿨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한 선교사들은 평양신학교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했다. 1907년 4월 2일부터 개학과 함께 시작된 저녁 집회에서 학생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매일 나타나기 시작했다.³⁰⁾ 이 저녁집회는 열정적인 기도로, 때론 개인의 인도로, 그리고 모두가 연합한 통성기도로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처음 시작부터 이전에 전혀 언급되지 않던 내면의 깊은 죄의 모습들이 고백되어졌다. 비통한 죄책감에서 비로소 평안함을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장로교와 감리교회, 숭실대학과 평양신학교 등의 미션스쿨과 신학교의 학생들에게까지 파급되어 강렬하게 나타났다. 죄의 통회와 자복을 통한 고백, 평안의 체험 등의 모습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나타났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같은 부흥운동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평양지역 기독교의 인적, 물적 토대의 바탕 위에서 전개되었음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29) 백낙준, 위의 책, p. 389쪽.

30) G. S. McCune, "Opening Days at the Theological Seminary", *Korea Mission Field*, 1907. 6, p. 89.

2. 전국 각지로 확산된 부흥운동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운동은 1월부터 6월까지 평양 시내 전역에 확산되었고, 이후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확산의 모습을 유형을 살펴보면, 장대현교회 남자사경회 등 평양에서 개최된 사경회 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이 고향에 돌아가 부흥운동을 전개하면서 파급되거나, 평양의 부흥운동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평양 대부흥처럼 자신들도 부흥의 체험을 맛보고자 하는 열망과 기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 부흥운동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흥운동의 지도자들이 전국교회의 초청을 받고 직접 가서 부흥집회를 인도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평양대부흥운동의 중심인물들이 각지로 나아가 부흥운동을 인도하기 시작했다. 그레함 리 선교사는 선천으로 스왈렌은 광주지역으로, 헌트(W. B. Hunt)는 대구로 가서 부흥집회를 인도했다.³¹⁾ 이 과정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전국 교회로 확산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한국인 길선주 장로였다.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회개와 영적 각성운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다. 부흥운동이 평양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평양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장대현교회 이전에 있었던 다른 여타의 부흥운동과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이었다. 여기에는 길선주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한국교회 부흥을 강력하게 호소함에 따라 그를 주강사로 모시는 사경회 요청이 전국에서 쇄도했다.

1907년 2월 길선주는 서울의 교회들로부터 남자 사경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도하게 되었다. 장대현교회의 대부흥운동을 직접 경한 길선주를 통해 서울의 교회에서 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다.³²⁾

31) 서정민, 위의 글, p. 253.

32) 옥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pp. 88~91.

승동·연동·수구문·상동 등 서울의 교회에서 개최된 집회에는 연일 길선주의 명성을 수많은 사람들이 초만원을 이루며 몰려들었다. 그렇게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죄의 회개와 자복을 통한 영적 각성을 깊게 체험하기 시작했다.³³⁾ 그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로교와 감리교나 할 것 없이 교파를 초월해 부흥집회를 계획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갈망했다. 길선주의 일련의 서울 전도 집회에서는 약 1,200여 명의 새신자들이 결신을 했다는 점만 보아도 그의 서울집회가 얼마나 성공적이며 대단한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서울지역의 교회들은 서울시내 전교인들의 1907년 4월 8일 합심하여 부흥의 역사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실시했다. 이를 듣고 여기에는 남녀학생들도 적극 참여했다.³⁴⁾ 서울 시내 교회는 물론 서울 주변 교회들에게 영적인 분위기와 기도, 사역의 영적 측면들이 긍정적이며 역동적으로 달라졌다.

서울지역에 강한 영적각성운동을 확산시킨 평양 대부흥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선천의 경우에는 1907년 2월 선천과 의주의 겨울 남자 사경회에서 그레함 리 선교사가 이를 인도했는데, 한 달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으며, 평양 전역에서 재연되었던 죄에 대한 회개와 자복의 영적 각성현상이 그대로 다시 일어났다.³⁵⁾ 이 때 참석하여 새로운 결단과 열망을 품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사경회를 통해 영적각성운동을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부흥의 불길이 지방 전역으로 급속도로 퍼져 나갈 수 있었다.

1907년 3월 초 대구에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³⁶⁾ 평양의 소식을 들은 대구 선교사들은 겨울 남자 사경회에서도 평양의 부흥 역사

33) 김진경, 『영계 길선주』, 종로서적, 1980, p. 203.

34) "All Day Prayer Meeting in Seoul", *Korea Mission Field*, 1907. 4, p. 57.

35) *Annul Report*, PCUSA, 1907, p. 64.

36) "W. M. Bruen, The Spirit at Taiku", *Korea Mission Field*, 1907. 4, p. 51.

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 2월에 말부터 10일간 300~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매일 사경회가 진행되었는데, 처음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중반 이후 사경회가 마치고 전까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위해 특별기도회를 계속 갖게 되었다.

3월 3일 주일 아침에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기도할 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죄의 회개와 자복의 고백이 터져 나왔다. 이런 회개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대구시내의 전역으로 퍼졌는데, 불과 수개월 만에 평양대부흥운동이 대구 지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어 갔다. 이외 대부흥운동의 열기는 개성, 강화, 제물포, 공주, 춘천 등지로 확산되었고, 함경북도 북청에까지 깊숙이 확산되어 갔다.³⁷⁾

한편, 1907년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은 서울과 한반도 전역을 확산되더니 곧 압록강을 넘어 중국 만주에까지 번져 나갔다.

평양대부흥운동이 중국에까지 알려져 한국과 인접한 지역에 활동하던 중국인 목사 2명이 1907년 평양을 방문했다. 중국 요양과 봉천 일대에서 목회하던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였기 때문에 직접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평양대부흥운동의 역사를 생생하게 듣고 적지 않은 도전과 자극을 받고 돌아가 만주의 교인들에 이 사실을 알렸다. 평양에서와 같이 회개와 영적 각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부흥운동을 강하게 전개하였다.³⁸⁾

두 명의 중국인 목사 돌아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중국 주재 고포드(J. L. Goforth) 선교사 또한 평양을 찾아왔다.³⁹⁾ 그는 한창 진행 중이던 한국의 8개 주요 선교지를 방문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목단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한국의 대부흥운동을 전하자 그 곳에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

37) 박용규, 위의 책, pp. 345~361 참조.

38) 이덕주, 「초기 개신교사에 있어서 한중 기독교교류」, 『한국기독교사연구』1, 1985, pp. 8~9.

39) J. S. Gale, *Korea in Transition*(New York: Layman's Missionary Movement, 1909), p. 216.

당시 중국에서는 의화단 사건 이후 기독교 선교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었고, 이를 타개할 새로운 선교방법이나 방침이 필요한 때였다. 이들 중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선교사에게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런 현상을 돌파할 새로운 선교방법으로 제시된 것이었다.⁴⁰⁾ 그리하여 이들은 귀국 즉시 중국교회의 부흥과 재건을 위해 영적각성운동을 전개했으며, 부흥의 열기가 요양과 봉천, 그리고 몽고와 북경지방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IV.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국화가 낳은 결과

첫째, 평양대부흥운동의 전국화 현상은 초기 한국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양대부흥운동의 전국화는 한국교회의 정체성이 원산, 개성, 평양, 서울이라는 특정지역과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파를 넘어 전국적으로 개인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 고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⁴¹⁾

또한 이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고백은 신앙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윤리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주어 한국교회를 새롭게 정화시켰고, 죄의식을 강화시켰으며, 윤리적 면에서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한국교회와 교인들 삶의 기준을 보편적인 지침을 갖게 만들었다.⁴²⁾

평양대부흥운동이 확산되면서 개인의 영적 각성을 통한 죄 사함과 구

40) 서정민, 위의 글, p. 256.

41) 이병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몇 가지 검토」, pp. 101~105.

42) W. N. Blair, *The Korea Pentecost ; The Results in 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s which Followed*(By W. N. Blair and B. Hunt,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act, 1977), pp. 73~78.

원의 확신에 대한 고백은 교인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의 고백과 간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확신이였다.⁴³⁾ 즉, 부흥운동은 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에 대한 참회, 그리고 고백이 반드시 동반한다는 점은 이후 한국교회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보편적 이해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부흥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은 각 지역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또는 일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부흥운동의 방법이나 방향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의 신앙적 모델로 자리 잡았고 이렇게 형상화된 모습은 이후 전국화 과정을 통해 확인되고 인식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한국교회가 하나의 신앙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대부흥운동의 전국화 과정을 통해 장로교와 감리교라는 교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월한 영적 각성의 체험은 인간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켜 주었고, 그들의 가치관을 세상적인 데서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었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복음화를 위해 ‘지역 연합전도운동’을 개최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노력하게 되었다.⁴⁴⁾

둘째, 평양의 교회와 교인들의 역사적 현실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동력(動力)이 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 다음의 도시인 평양은 서울에 비해 늦게 선교가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의료사업과 함께 교육사업에 열정적으로 매진한 결과 평양지역에 빠르게 자리 잡은 기독교 공동체는 서울과 비교해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체제와 시설, 그리고 인적 기반을 닦고 있었다. 교육사업에서도 단순히 선교사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양의 기독교인들이

43) 백낙준, 위의 책, pp. 393~394.

44) 이에 대해서는 박용규, 위의 책, pp. 540~567 참조.

자발적으로 나서서 세워진 많은 학교들이 있었는데, 이들 학교들과 학생들이 평양 대부흥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1907년 대부흥운동의 인적·물적 토대의 역할을 담당했다.⁴⁵⁾

또한 평양이 장로교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고, 감리교 역시 교세면에서 장로교에 비해 1/3정도 수준이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성장의 속도는 대단히 빠른 것이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탁월한 평양의 교세(敎勢)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를 평양 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동시키는 구조적 힘으로 작동되었다.⁴⁶⁾ 이와 함께 평양 교인들의 집단적이고 특별한 전도열정과 헌신은 실질적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물리적 힘의 역할을 감당했다.⁴⁷⁾

셋째, 평양대부흥운동의 전국화 과정을 통해 한국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참여와 인도하는 지도력이 대폭 강화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1903년 부흥운동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운동에서 촉발되었듯이, 한국교회 초기 전 영역에서 걸쳐서 선교사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⁴⁸⁾ 한국교회 초기 철저히 선교사들이 주도하는 교회였다. 물론 1900년대에 들어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설립하고, 한국교회의 제도적 자립을 추구했다고 하더라도 1900년대 여전히 선교사들이 모든 제도적 행정 분야를 선교사들

45) 한말 근대식 학교 설립도 관서지방이 가장 활발했는데, 1910년 7월 현재 전국 학교 총수 2,237개교 중 사립학교 2,082개교 가운데 주로 장로교·감리교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755개교에 달해 약 과반수가 관서지방에 세워졌다.¹⁾ 이는 교회의 발전과 사립학교의 증설에서 기독교가 다른 어떤 곳보다 관서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46) 관서지방은 1890년대 초 본격적인 선교사업이 시작된 이래 선교활동이 불과 몇 해 만에 교세가 크게 번져 갔다. 이런 교세의 발전은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것이었는데, 1885년부터 1910년까지 설립된 장로교회의 총수 683개 중 관서지방의 것이 362개로 그 과반수를 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47) 1907년 대부흥운동은 장로교회와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회를 아우르며 평양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들의 놀라운 질적·양적 성장의 결과를 낳았다.

48)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관련된 연구들 대부분들은 선교사들이 이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1907년 대부흥운동의 역사적 성격과 관련하여 지금도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다.

이 장악하고 있었다.⁴⁹⁾

이런 상황에서 부흥운동의 촉발은 선교사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평양대부흥운동의 불씨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사람은 한국인 리더역할을 한 길선주 장로였다.⁵⁰⁾ 그는 평양대부흥운동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리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대부흥운동의 저변 확대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단순히 대부흥운동에 깊게 관여한 정도가 아니라 이 운동의 핵심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했다는 점에서 선교사들을 보조만 하던 한국인 지도자들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나서고 손색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이런 활약은 1907년 9월 장로교 독노회가 설립되고, 한석진·서경조·양전백·길선주·방기창·이기풍·송인서 등 7명이 이 때 조직된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⁵¹⁾

이런 현상은 각 지역의 부흥운동 확산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선교사의 이름으로 집회가 이뤄진다고 해도 실제로는 한국인 조사나 영수 등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이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⁵²⁾ 길선주 장로 한사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흥운동을 전국 각지 도시나 농촌, 산간벽지와 오지에까지 한국인 조사나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부흥운동의 확산에 그치지 않고 한국교회의 제도변화와 맞물려 한국교회 지도력이 이제 외국 선교사들에서 한국인 지도자로 전화되고 있음을 보

49) 김양선, 위의 책, pp. 95~97. 과거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되던 한국교회의 행정과 치리 및 예배인도에 한국인들이 참여하게 된 첫 계기는 1901년 9월 20일 새문안교회에서 개최된 제1회 장로회공의회였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들이 바로 교회의 치리권과 행정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1907년 노회가 결성될 때까지 선교사들만의 조직체인 선교공의회를 계속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0) 옥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pp. 82~87.

51) W. D. Reynolds, "The Presbytery of Korea", *Korea Mission Field*, 1907. 11, p.162-164.

52) 박용규, 위의 책, pp. 362~364.

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V. 맺음말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은 당시 한국교회에 큰 바람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에 일어나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가 1907년 대부흥운동을 기념하며 다시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큰 영향을 미쳤던 역사를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때 일어났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감격이 오늘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염원이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들어 교회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비판과 공세가 거세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 우리가 1907년 대부흥운동을 돌아보는 아마도 100년 전 대부흥운동으로부터 새로운 역사적 통찰력을 얻어서 오늘 한국교회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1907년 대부흥운동은 그동안 한국기독교역사 연구차원에서 보면, 아마도 가장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아왔다. 여전히 아직도 그 사실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여기서는 그동안 연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을 다루어 보았다. 그것은 1907년 왜 폭발적인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많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왜 유독 평양에서만 폭발적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가 하는 점이였다. 1907년 평양지역의 부흥운동이 오늘날까지

기념될 정도로 엄청난 흔적을 남기게 된 것은 집중적이면서도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과 함께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멀리 중국에까지 확산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나 부흥운동이 대부흥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평양지역이 갖고 있는 기독교의 사회적 기반임을 제시하고자 했다. 인적·물적 기반이 다른 여타의 어떤 지역보다 뛰어났던 것이야말로 평양 부흥운동을 평양 전 지역을 비롯해 전 지역에 확산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기반을 토대로 부흥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확산된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신앙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 확산과정에서 한국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는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갈 리더십이 이 기회를 통해 급성하고 있었던 것도 대부흥운동이 낳은 중요한 결과임을 살펴보았다.

〈논평문〉

평양 대부흥운동의 확산에 관한 연구

I. 논문의 가치와 의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한국교회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부흥의 물결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한국교회의 성격과 특징을 규정지은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말한다. 이처럼 중요한 교회사적 의미를 지닌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학술대회를 부흥운동의 주역 가운데 하나인 숭실대학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김권정 박사의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국화”에 대한 논문은 평양 대부흥운동 연구에 있어서 아직 미개척 분야라 할 수 있는 분야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권정 박사가 지적했듯이 그동안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흥운동이 한국교회의 비정치화의 과정의 산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영국, 인도,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복음주의적인 관점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다른 연구들 가운데에는 부흥운동의 결과 한국교회가 네스비우스 선교방법론인 자립과 자전,

그리고 자치를 구현하여 토착교회로 자리 잡아 갔다는 신학적 관점의 해석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해석들은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더하여 주었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여타지역의 부흥운동과 달리 평양을 넘어 전국화 되었으며, 그 전국화의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김 박사가 지적하듯이 기존의 연구들이 그동안 이 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논찬자는 이번 에 김권정 박사가 본 논문을 통해 평양 대부흥운동의 동력과 전국화의 과정을 한국교회에 소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본 논문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의라 생각한다.

II. 논문의 내용 요약과 평가, 그리고 제언

김 박사는 본 논문을 평양 대부흥운동의 배경,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국화 과정, 그리고 전국화의 특성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먼저 부흥운동의 배경을 살펴보면, 김 박사는 평양지역의 기독교 수용의 역사와 1907년 대부흥운동 이전까지의 교회와 교세의 성장을 자세하고도 면밀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김 박사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배경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선교초기 평양이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의 격전장이 됨으로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평양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줌으로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된 점과 교인들의 절대자에 대한 의존의 감정이 더욱 깊어지게 된 점을 들고 있다. 둘째로 의료와 교육 선교기관의 발전이다. 청일전쟁 이후 전염병이 만연한 상황에서 미감리교회와 장로교 선교부는 평양에서 의료사업에 매

진하여 헌신적으로 평양주민들을 치료해 주었다. 또한 평양 주민들과 협력하여 송실대학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 교육기관들을 설립하여 평양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었다. 김 박사는 선교부의 이러한 사역과 정책들이 1907년 대부흥운동의 인적·물적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한다. 셋째로 교회의 급격한 성장이다. 선교사들과 한국인 교인들의 열심과 헌신은 평양지역에서 타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성장은 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수시로 모인 사경회와 날연보와 같은 헌신적 전도 활동에 힘입은 것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추동시킨 기반이었으며, 실질적인 동력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김 박사는 제3장에서 본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국화 과정을 다룬다. 이 부분에서 김 박사는 먼저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생과 전개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1907년 1월 16일 수요일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의 물결이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송실대학을 비롯한 미션스쿨과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파급되어 가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김 박사는 대부흥운동의 전국화의 과정을 서술한다. 김 박사는 이 부분에서 전국화의 기본적 유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 장대현 교회의 남자사경회와 전국 전도부인 사경회 등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부흥운동을 전개하면서 파급되거나 2) 평양의 부흥운동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부흥의 체험을 맛보고자 하는 열망과 기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 부흥운동이 일어난 경우 3) 부흥운동의 지도자들이 전국교회의 초청을 받고 직접 가서 부흥집회를 인도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특히 김 박사는 부흥운동의 중심인물들에 주목하여 선천의 그레함 리, 광주의 스왈렌, 대구의 헌트의 부흥집회를 소개하며, 전국화의 결정적 역할을 길선주 장로에게서 찾고 있다. 길선주 장로는 전국각지의 부흥운동의 주장사로 초청되었으며, 서울에서만도 승동, 연동, 수구문, 상동 등의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으며,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죄의 회개와 자복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부흥운동의 열기는 개성, 강화, 제물포, 공주, 춘천 등지로 확산되었고, 함경북도 북청을 넘어 중국의 만주와 북경, 그리고 몽고 지역까지 확산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제4장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국화의 특성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1) 초기 한국교회의 신앙적 정체성 형성의 계기가 된 점 2) 전국화의 동력은 평양의 교회와 교인들의 역사적 현실이었다는 점 3) 전국화의 과정을 통해 한국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참여와 인도하는 지도력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고 논문을 마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김 박사의 논문은 본 논찬자가 보기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략 두 가지 차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로는 평양 대부흥운동 연구에 있어서 아직 자세히 연구된 바 없는 부흥운동의 전국화 분야라는 미개척 분야를 다루었다는 점이다.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은 사료수집의 어려움과 한계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본 논문의 가치와 의미는 매우 소중하며, 김 박사 특유의 성실성과 학문성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는 김 박사는 여타 지역의 부흥운동과 달리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전국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동력을 평양의 기독교 수용의 역사와 의료·교육 사업, 그리고 교회와 교세의 성장의 거시적 관점으로 파악하며, 그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점 또한 그동안 김 박사가 추구한 한국교회사 연구방법론의 결실이며, 본 논문을 풍성케 하였다고 논찬자는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본 논문의 의의와 가치에도 불구하고, 본 논찬자는 몇 가지 관점에서 아쉬웠던 부분과 추가로 설명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제언하면서 논찬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로 본 논문은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국

화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전국화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서술이 좀 더 설명되고 보충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선교지별 혹은 교회별로 누구에 의해 어떠한 내용으로 부흥운동이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물론 사료수집의 어려움과 한계 때문이라고 여겨지지만, 이에 대한 서술이야말로 본 논문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둘째로 김 박사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국화의 동력을 평양지역의 특수성, 즉 의료와 교육사업, 그리고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의 복음전도의 열정과 헌신으로 인한 결과로 보았다. 그러나 근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흥운동은 평양만의 부흥이 아니라 영국, 미국, 인도 등을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대각성 운동이었다. 특히 선교사들은 이들 부흥운동의 내용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으며,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의 지도자와 접촉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찬자는 이러한 내용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배경으로 서술되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셋째로 김 박사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국화의 특성 부분에서 전국화 과정을 통해 한국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인도력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논찬자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밀도 있는 서술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국화의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즉 1907년 길선주를 비롯한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7인이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한국교회의 지도자들로 등장한 시기이다. 길선주만이 아니라, 이들은 신학교 재학시절 평양 대부흥운동을 체험했으며,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들의 사역지에서 선교사들과 더불어 부흥운동을 일으켰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전국화의 내용 중 이들의 사역에 대한 서술이 보충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여파는 부흥운동기에 나타난 길선주의 새벽기도회가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어갔고, 1910년에는 백만인구

령운동 등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논찬자는 전국화의 내용이
운데 새벽기도회와 사경회의 전파와 정착에 대한 서술, 그리고 전국화의
결과로 백만인구령운동에 대한 언급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명배, 서울장신대)